

민족문화경전이야기총서

国家“十二五”少数民族语言文字出版规划项目

民族文字出版专项资金资助项目

허저족

Hèzhézú

赫哲族

편자 대기복
역자 김상녀



표녕민족출판사
외국어교학과 연구출판사

© 金尚女 2014

© 外语教学与研究出版社有限责任公司 2014

图书在版编目(CIP)数据

赫哲族：朝鲜文 / 代启福编；金尚女译. —沈阳：
辽宁民族出版社，2014. 5
(民族文化经典故事丛书)
ISBN 978-7-5497-0795-9

I. ①赫… II. ①代… ②金… III. ①赫哲族—民
族文化—中国—少儿读物—朝鲜语（中国少数民族语言）
IV. ①K282.5-49

中国版本图书馆CIP数据核字(2014)第115472号

赫哲族

HEZHEZU

出版发行者：辽宁民族出版社

地 址：沈阳市和平区十一纬路25号 邮编：110003

印刷者：沈阳航空发动机研究所印刷厂

幅面尺寸：180mm×240mm

印 张：5

字 数：40千字

印 数：1-1500

出版时间：2014年5月第1版

印刷时间：2014年5月第1次印刷

责任编辑：张学林

封面设计：杜 江

责任校对：李 京

标准书号：ISBN 978-7-5497-0795-9

定 价：18.00元

法律顾问：陈 光

版权专有 侵权必究

如有印装质量问题，请与出版社联系调换

网址：www.lnmzchs.com

淘宝网店：http://lnmz2013.taobao.com

举报电话：024-23284336

邮购电话：024-23284335

联系电话：024-23284340

《민족문화경전이야기총서》 편집위원회

주편

왕천근

부주편

장해양

학상근

편집위원회성원(ㄱㄴㄷ 순)

곽우파

두얼버타이(몽골족)

리소빙

푸즈다링(이 족)

샌미시누(위글족)

석국용

장금수(투자족)

전산천

정 아 (회 족)

황 연(거로족)

양 화

웅덕정(푸미족)

왕 리(만 족)

왕 봉(바이족)

왕효징

위 평(짱 족)

왕해연(창 족)

심고전문가(ㄱㄴㄷ 순)

김여빈(회 족)

송 전(몽골족)

수 청(몽골족)

장약박(몽골족)

왕철지(몽골족)

서 언

56개 민족은 56송이의 꽃이요

56개 형제자매는 한가족일세...

중국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노래를 익히 알고있을것이다. 중국사람이라면 당신이 어디를 가든, 당신이 년장자이든 년소자이든 이 아름다운 선률과 열렬하고 경쾌한 노래에 감동될것이며 혈관속에서 사뭇치는 중국심(中国心)을 그 누구도 개변시킬수 없을것이다.

중국은 예로부터 하나의 통일된 다민족국가이다. 새중국이 건립된후 식별을 거치고 중앙정부의 확인을 받은 민족은 56개이다. 한족을 제외한 55개 민족은 인구가 한족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기때문에 습관적으로 “소수민족”이라고 일컬어왔다. 이 55개 소수민족은 몽골족, 회족, 장족, 위글족, 묘족, 이족, 좡족, 부이족, 조선족, 만족, 좡족, 요족, 바이족, 투자족, 하니족, 까자흐족, 따이족, 리족, 리수족, 와족, 씨족, 고산족, 라후족, 수이족, 둥샹족, 나시족, 징퍼족, 끼르기즈족, 투족, 다우르족, 무로족, 창족, 부랑족, 싸라족, 모난족, 거로족, 시버족, 아창족, 푸미족, 따지크족, 누족, 우즈베크족, 로씨야족, 어원크족, 더앙족, 보안족, 위구족, 징족, 따따르족, 두통족, 오로첸족, 허저족, 먼바족, 로바족, 지노족이다.

중국 각 민족의 분포특점은 대잡거(大杂居), 소집거(小聚居)에 서로 섞여서 거주하는것이다. 한족지구에 소수민족이 집거해있기도 하고 소수민족지구에 한족이 섞여서 살기도 한다. 이런 분포구조는 장기적인 력사발전과정에서 여러 민족이 서로 교제하고 류동하면서 형성되였다. 중국의 소수민족은 분포가 광범위한바 전국의 각 성, 자치구, 직할시마다 소수민족들이 거주하고있고 절대 대부분의 현급행정구에는 두개 이상의 민족이 거주하고있다. 소수민족은 주로 내몽골, 신강, 녕하, 광서, 서장, 운남, 귀주, 청해, 사천, 감숙, 료녕, 길림, 호남, 호북, 해남, 대만 등 성과 자치주에 분포되여있다. 중국에서 민족성분이 제일 많은 성은 운남성

으로서 25개 소수민족이 세세대대로 거주해왔다.

세계의 동방에 우뚝 선 중국은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문명을 갖고있다. 역사의 발전과정에서 중국의 56개 민족은 정치, 경제, 지리환경, 종교신앙, 풍속습관이 서로 다름으로 하여 동종동원동근동맥동습동연(同种同源同根同脉同习同缘)의 공성을 갖고있는 한편 각 민족지간의 문화적차이도 갖고있다. 이로하여 풍부하고 다양한 중화민족대가정문화를 형성하였다. 내몽골대초원 몽골족의 “나다무(那达慕)” 경마에서 운남 시쌍반나 타이족산채의 발수절(泼水节)에 이르기까지, 세계의 지붕에서 전해내려온 신비한 고대 장족의 서사시 《거싸르왕전》에서 리강 량안 류삼저(刘三姐) 고향의 짝족대창(对歌)에 이르기까지, 장백산아래 해란강반 조선족의 장고춤에서 청해호반에 울려퍼지는 투족의 “꽃”노래에 이르기까지, 푸르름에 도취하게 하는 신강 톨판 포도골짜기에서 너울너울 춤추는 위글족의 무용에서 꿈같고 그림같은 대리바이족자치주 창산이해에서 둥둥거리는 삼현가락에 이르기까지… 바로 이런 오색찬란하고 풍격이 각이한 다민족문화가 중국문화의 장려한 화폭을 공동히 구성하였다.

중국문화의 우수한 전통을 널리 알리고 풍부하고 다채로우며 기상만천한 중국 56개 민족의 역사문화를 세세대대 전해내려가며 중화민족의 정신적고향을 구축하기 위하여 외국어교학과연구출판사에서는 민족문화에 관련된 학자와 작가들을 특별초청하여 광대한 소년아동을 위한 이 “561문화과제—민족문화경전이야기 총서”를 편찬하였다.

이 총서는 전문 신세기 소년아동들을 위해 집필한 맞춤형도서라고 할수 있다. 한개 민족에 한책씩 모두 56권이다. 총서는 56개 민족의 역사문화발전을 주선으로 하면서 각 민족의 다채로운 이야기예술을 유기적으로 융합시키고 그림과 글이 어우러져 풍부하고 다채로우며 생동하고 형상적이므로 사상성, 이야기성, 지식성, 가독성을 한몸에 지니고있다.

56개 민족은 56송이의 꽃이다. 56권의 좋은 책을 모두어 한마디로 엮어본다. 우리 중화를 사랑하자. 좋은 책을 여럿이 읽자, 책을 읽으면 마음이 자란다.

“561문화과제” 편찬위원회

목 록

제1장 흑금부락—허저족의 기원

은뚜리가 사람을 창조하다 /9

백성사람의 후대 /13

허저족 일곱 성씨의 유래 /19

제2장 허저족의 의, 식, 주, 행

물고기가죽옷에 관한 전설 /21

탈라카의 래력 /25

황어의 래력 /27

연어의 래력 /29

취뤄즈, 마짜즈와 위러우즈—특색민가 /31

사냥개가 주인을 구하다 /33

개가 썰매를 끌고 운수하다 /35

스키에 관한 이야기 /37

제3장 허저족의 종교신앙과 명절

샤만의 래력 /39

록신절에 관한 전설 /43

제4장 허저족의 민간문학과 예술

무뚜리머르뀐에 관한 이야기 /47

우얼구리산과 뿔라인즈산의 래력 /51

로덕성이 호랑이를 잡은 이야기 /53

구현금에 관한 전설 /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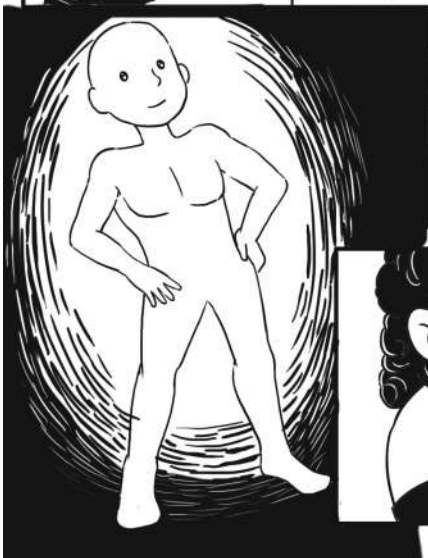
백조춤의 유래 /61

제5장 허저족의 인생례의와 도덕관념

기러기가 중매를 서다 /71

우싸하트에 관한 이야기 /75

참고문헌



제1장 흑금부락

——허저족의 기원

허저족은 우리 나라에서 인구가 가장 적은 민족중의 하나이다. 2000년 제5차 전국인구조사의 통계에 의하면 허저족의 인구는 도합 4640명으로서 주로 흑룡강성의 동강시, 요하현(饶河县), 무원현(抚远县)과 가목사시관할구내의 가진구(街津口), 사패(四排), 팔차(八岔) 등 세개의 민족자치향에 분포되어있다.

허저족은 유구한 역사를 가진 민족으로서 예로부터 흑룡강, 송화강, 우쑤리강 류역에서 번성하여왔다. 허저족은 “숙신(肅慎)” “읍루(挹婁)” “물길(勿吉)” “녀진(女真)” 등 중국 동북의 고대민족들과 밀접한 족원관계가 있는데 청나라시기의 “흑근(黑斤), 흑금(黑金)” “허저하라(赫哲哈喇)”가 바로 그들의 선민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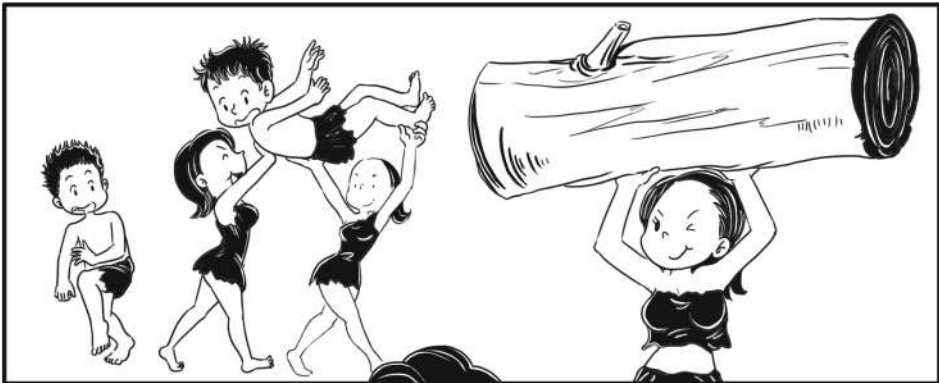
청나라시기와 민국초기에 허저족은 외족들에게 “사견부(使犬部)” “어피부(魚皮部)”라고 속되게 불리우다가 새 중국이 성립된후에야 “허저족”이라고 통칭하게 되었다.

“허저”라는 단어는 만족어인데 “하류” 혹은 “동방”이라는 뜻이다. 허저사람들은 “용르베이(用日貝)” “나니오(那尼卧)” “나내(那乃)”라고 자칭하는데 이것은 “본지 사람”이라는 뜻이고 “혁진(赫真)”이라고도 자칭하는데 이것은 “동방의 사람”이란 뜻이며 또 “기릉(奇楞)”이라고도 자칭하는데 이것은 “강기슭에 사는 사람”이란 뜻이다.

허저족은 어떻게 산생했을까? 민간에는 아래와 같은 신화가 전해지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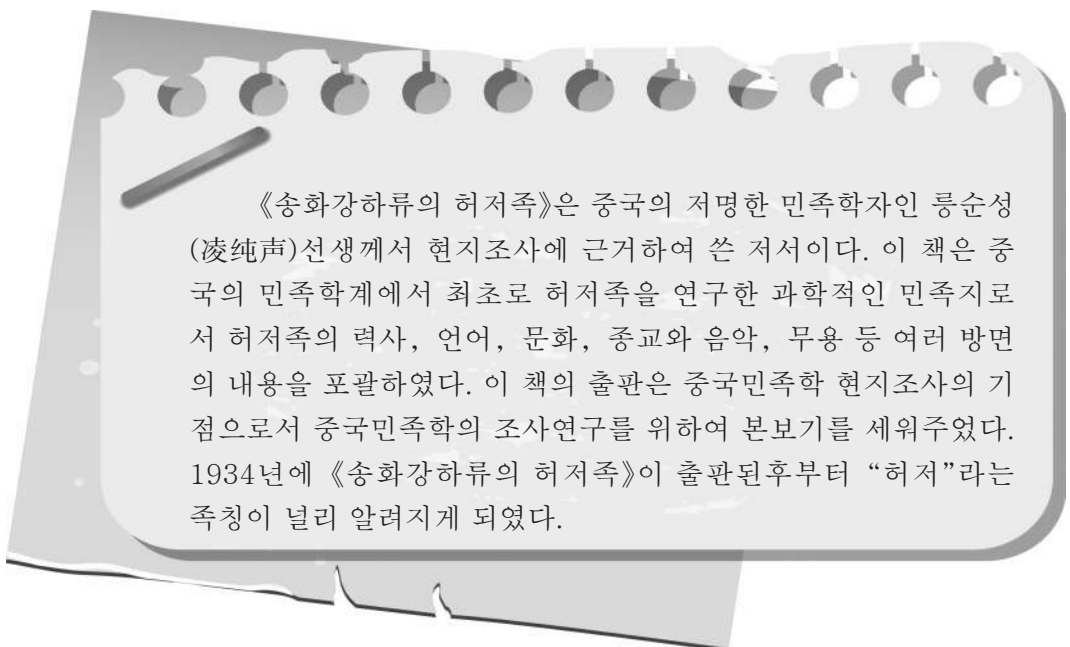
은뚜리가 사람을 창조하다

옛날옛적에 대, 소흥안령 일대에는 오직 망망한 립해와 무리를 지은 날짐승과 들짐승 그리고 비옥한 토지밖에 없었다. 하늘에 있는 신령 은뚜리(恩都力)가 이것을 보고 너무 안타까와 속세에 내려와서 사람을 만들기로 작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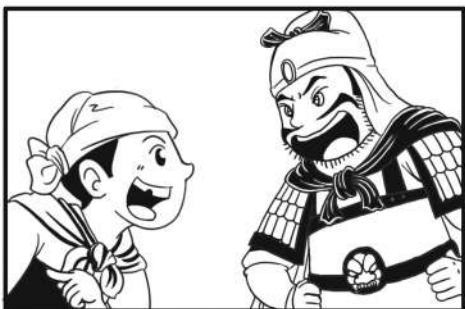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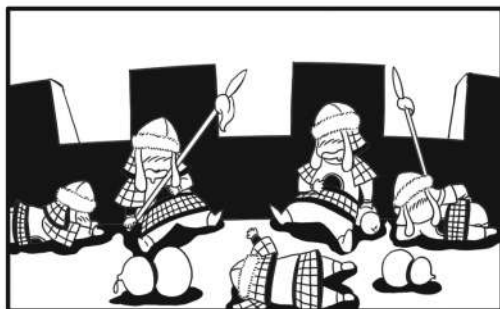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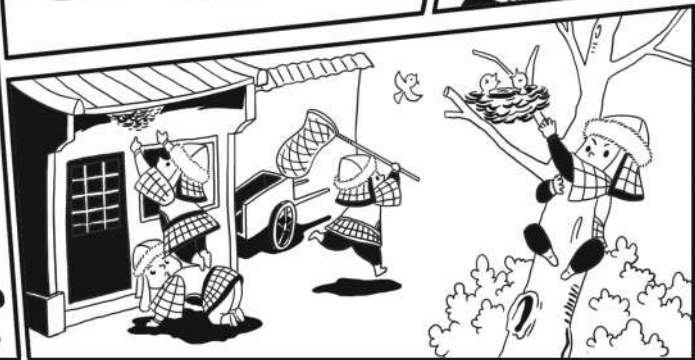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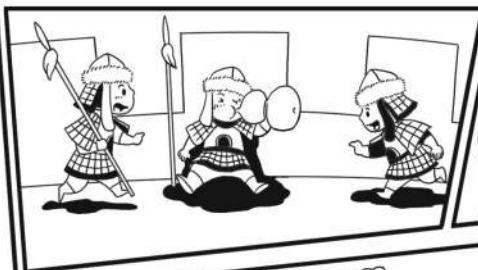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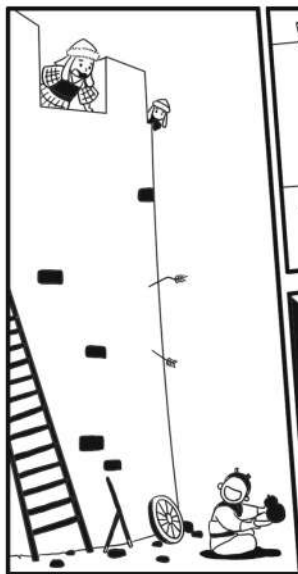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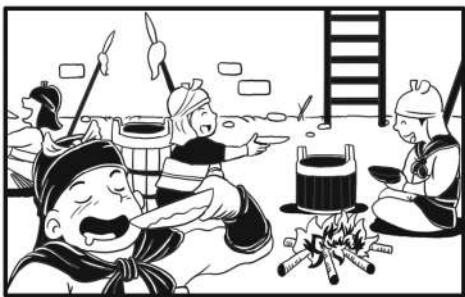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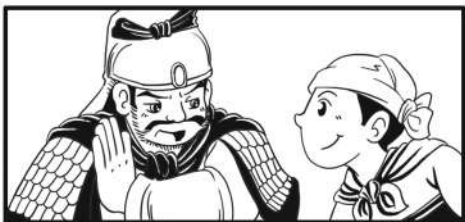


그는 속세에 내려온후 먼저 동물의 뼈로 사람의 골격을 만들고 물과 흙으로 사람의 팔다리, 눈, 코, 입과 귀를 만들었다. 이렇게 만들어진 흙사람을 물고기의 입안에 넣었다가 꺼내니 생명이 있는 사람으로 되었다. 그는 남자와 여자를 각각 열명씩 만들려고 계획하고 먼저 열명의 남자를 만들었는데 모두 하나같이 키쫘이 장대하고 준수하였으며 위풍이 당당하였다. 그러나 여자를 만들 때 동물의 뼈가 부족한것을 발견하고 할수없이 뼈를 하나씩 적게 쓰고 흙으로 보충하였다. 이렇게 만들어진 열명의 여자는 모두 뼈가 적고 살이 많아 한결같이 키가 작고 허약하여 힘든 일을 할수 없었다. 그리하여 은뚜리는 동물의 뼈를 더 구해다가 여자에게 보충해주었다. 그랬더니 여자가 황소처럼 힘이 세여 남자보다 더 건실하게 되었다. 일이 이렇게 되자 은뚜리는 마음에 들지 않아 여자의 몸에서 동물의 뼈를 일정하게 뽑아내어 대체로 남녀가 조화를 이루게 하였다. 이 열명의 남자와 열명의 여자가 바로 최초의 허저사람들이다.

허저족은 다만 자기들의 언어만 있을뿐 문자는 없다. 그들의 언어는 어음상에서 동일어족인 만족, 시버족, 오로첸족, 어원크족과 비슷한 점이 아주 많다. 력사상 허저족은 보편적으로 허저어를 사용해왔고 청나라때 일부 사람들은 만족문자를 사용하였었다. 지금은 장기적으로 한족과 잡거하면서 대부분의 허저족사람들은 한어와 한문을 다 사용할줄 안다.



《송화강하류의 허저족》은 중국의 저명한 민족학자인 룡순성(凌纯声)선생께서 현지조사에 근거하여 쓴 저서이다. 이 책은 중국의 민족학계에서 최초로 허저족을 연구한 과학적인 민족지로서 허저족의 력사, 언어, 문화, 종교와 음악, 무용 등 여러 방면의 내용을 포괄하였다. 이 책의 출판은 중국민족학 현지조사의 기점으로서 중국민족학의 조사연구를 위하여 본보기를 세워주었다. 1934년에 《송화강하류의 허저족》이 출판된후부터 “허저”라는 족칭이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허저족은 언제부터 현재 거주지역으로 이주해왔을까? 허저족민간에는 아래와 같은 이야기가 전해지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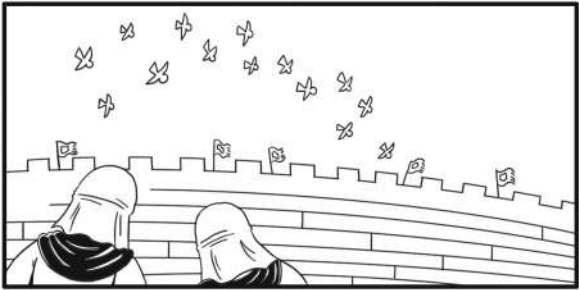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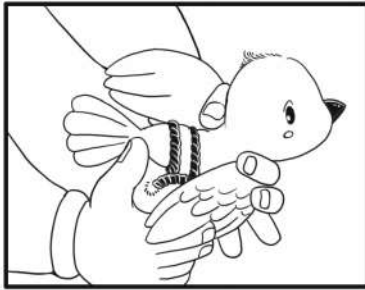
백성사람의 후대

악비(岳飞)의 군대가 금을출(金兀术)과 전쟁할 당시에 있는 일이라고 한다. 악비의 군대는 백성(白城)을 오래동안 공격했으나 격파하지 못하여 성을 겹겹이 포위하고 시기를 기다리는수밖에 없었다. 못장수들이 근심에 싸여 찌프린 눈살을 펴지 못하고있을 때 대장군 우고(牛皋)가 문득 성을 격파할 묘계가 떠올라 조용히 병사들에게 자기의 계획에 따르도록 분부하였다.

이튿날, 악비의 병사들은 성밑에다 술통을 잔뜩 갖다놓고 우등불옆에 둘러앉아 불을 쪼이면서 마음껏 술을 마셨다. 서북풍을 맞받으며 굶주림과 추위에 시달리고있던 성우의 수비군들은 악비의 병사들이 술을 마시는것을 보자 참지 못하고 술을 좀 달라고 청을 들었다. 그러자 악비의 병사들은 아주 시원스럽게 술을 담은 조롱박을 성우로 던져주었다. 성우의 수비군들은 사람은 많고 술은 적은지라 조롱박이 금방 비었다. 수비군들이 또 술을 달라고 하자 악비의 병사들은 “술이야 얼마든지 있지만 공짜로 당신들에게 줄수는 없소. 당신들이 산 참새를 가지고와서 술과 바꾸는것이 어떻소? 참새 열마리에 술 한조롱박이요!”라고 말하였다. “좋소!” 이리하여 성을 지키던 수비군들은 너도나도 참새둥지를 찾으러 성안으로 떠났다.

며칠후, 성을 지키던 수비군들은 성안의 처마밑과 나무우의 참새둥지들을 다 들추어 만마리도 넘는 참새들을 잡았다. 그들은 그 참새로 악비의 병사들과 술을 바꾸어 마셔버렸는데 나중에는 폭 취하여 이리저리 나가넘어지고말았다.

악비군의 정탐이 적군의 내막을 파악하고 즉시로 대장군 우고에게 보고를 올렸다. 이 소식을 듣자 우고는 크게 웃으며 “하늘이 나를 돕는구나! 성을 격파할 시기가 코앞에 다가왔다!”라고 말하였다.



그날 저녁, 악비군의 병사들은 우고의 분부에 따라 참새들의 다리와 꼬리에 불심지를 달아매었다. 그리고나서 심지에 불을 달자 수많은 참새들이 급기야 놀라서 앞을 다투며 성안에 있는 제 둥지로 날아들었다. 참새들이 날아가는 곳마다에 불꽃이 튀기여 불이 붙었는데 삽시간에 백성안은 치솟는 불길과 연기에 휩싸여 수라장이 되고말았다. 악비군은 이 혼란한 틈을 타서 일거에 성을 격파하였다.

크게 패배한 금율출은 할수없이 패잔병들과 백성들을 이끌고 포위를 뚫고 동쪽방향으로 도망하였다. 몇달간의 간거한 행군을 거쳐 그들은 “샤할린망머(薩哈林牴莫, 허저어로 흑룡강이라는 뜻)”라는 곳에 다달았다.

때는 이미 날씨가 무더워진 계절이라 강은 물살이 거세고 파도가 높았는데 부근에서는 강을 건널수 있는 배를 구할수가 없었다. 금율출은 적병의 추격이 두려워 급히 도강하려고 하였으나 어찌할 도리가 없는지라 강가에 천막을 치고 잠시 머물기로 하였다.

하루는 금율출이 속상한김에 혼자서 술을 잔뜩 마시고 흐리터분한 정신으로 큰아들에게 말하였다. “어서 가서 강이 얼어붙었는가 보고 속히 와서 고하거라.” 큰아들이 말하였다. “아버님, 여름철에 강이 얼어붙다니, 당치않은 말씀입니다!” 금율출이 노하여 소리높이 꾸짖었다. “불효자식같으니라구, 그래 너는 아비가 여기서 죽으라는게냐? 거기 누가 없느냐, 이놈을 끌어다가 목을 베여라!”

이튿날 금율출은 또 술에 폭 취한채 둘째아들을 불렀다. “둘째야, 오늘은 강이 얼어붙었느냐?” 둘째아들도 무던하고 솔직한 사람인지라 거짓을 고할수가 없어서 “강이 얼어붙지 않았습시다.”라고 이실직고하였다. 이 말을 들은 금율출은 화가 나서 둘째아들의 변명을 듣지도 않고 다짜고짜로 부하를 명하여 끌어내다 목을 베게 하였다.



사흘째 되던 날, 금을출은 또 술에 독초가 되어 이번에는 셋째아들을 불렀다. “지금은 강이 얼어붙었느냐?” 두 형님이 강이 얼어붙지 않았다고 말했다가 모두 목이 날아난것을 생각한 셋째는 사실대로 말했다가는 자기도 죽을것이 뻔한지라 생각을 굴리다가 자신이 한번 가보겠다고 하였다.

셋째는 홀로 강가에 가서 하늘을 우러러 간절히 기도했다. “하늘이여! 땅이여! 신이여! 제가 죽을 운명이 아니라면, 우리 백성사람들이 계속 번성할수 있게 하시려거든 이 큰 강에 석자 두께의 얼음다리를 놓아주소서! 저희들이 강을 건널수 있게 도와주소서!” 셋째가 기도를 마치자마자 날씨가 불시에 추워지더니 거위 털같은 함박눈이 펄펄 쏟아지고 찬바람이 췌췌 불어치는데 마치 엄동설한같았다. 물우에는 얼음덩어리들이 생겨나 서로 부딪치며 “뚝! 뚝!” 하는 소리를 내더니 눈 깜박할 사이에 얼음다리가 대안까지 놓여졌다.

셋째는 미칠듯이 기뻐서 나는듯이 천막으로 돌아와 아버지께 아뢰었다. “아마 (아버님)! 하느님이 우리를 가엾게 여겨 강우에 얼음다리를 놓아주셔서 강을 건널수 있게 되었습니다!” 금을술은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어 사람을 시켜 강가에 가 보게 했더니 6월의 강우에 과연 거대한 얼음다리가 놓여있어 사람과 말들이 거침 없이 통과할수 있게 되었다. 이리하여 금을출은 병사들과 백성들을 이끌고 무사히 강을 건너게 되었다.

이상하게도 금을출의 대오가 강을 다 건너자마자 그 얼음다리는 순식간에 녹아 물로 되었다. 악비군은 강가에까지 추격해왔으나 건널수 없어 대안을 바라보며 한탄하는수밖에 없었다.

금을출의 대오는 강을 건넌후 랑초가 다 떨어져 할수없이 물고기를 낚아서 허기를 달래었다. 그러나 낚아온 물고기는 적어서 턱없이 부족하였다. 금을출은 대오를 이끌고 강을 거슬러 올라가 송화강, 혼동강(混同江, 흑룡강과 송화강이 합류하여 우쭈리강어귀에 이르는 류역), 흑룡강과 우쭈리강 연안에서 장기적으로 정착하여 사냥과 물고기잡이로 생계를 유지해나갔다.

그후에 사람들은 당시 강가에 정착한 사람들을 “기룽(奇楞, 강가에 사는 사람)”이라고 불렀고 강을 따라 서쪽으로 간 사람들을 “삭룬(索伦, 서쪽에 사는 사람)”이라고 불렀으며 강을 따라 동쪽으로 간 사람들을 “혁진(赫金, 동쪽에 사는 사람)”이라고 불렀다. 오늘날에 와서도 허저족의 로인들은 자기들의 선조를 말할라치면 모두 당시의 백성사람이라고 한다.